

[교육]

국어·국사 제외 전과목 영어수업

명문에서 배운다 <2>

민족사관고



학생들의 경시대회 입상을 기리기 위해 학교에서 추모관 뒷편에 심은 기념식수.



민사고 2학년생들이 시험을 앞두고 야외에서 영어 자율수업을 하고 있다.



민사고 출신 학생들을 위한 노벨상 수상 좌대(座臺)가 교정 한 켠에 마련돼 있다.

봄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는 점심 시간.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소사리 민족사관고등학교(이하 민사고·교장 이돈희) 추모관 앞 잔디밭에는 이 학교 1학년생 몇몇이 모여 도시락을 까먹고 있다. 점심은 생활관 12층 식당에서 먹지만 며칠 후 있을 시험 때문에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다.

학생들은 아침 식사에 나왔던 몇 가지 음식들을 싸서 점심으로 떼운 뒤 이내 책 속으로 빠져들었다. 책은 영어로 된 'SAT II-Physics', 미국의 대학 입시에 필요한 SAT(Scholastic Aptitude Test) 시험의 물리과 과목 책이다. 입학한 뒤 한 달여 동안 배운 4단원이 시험 범위. 페이지는 벌써 100쪽을 훌쩍 넘었다. 점심 시간이 끝날 즈음 학생들은 수업을 듣기 위해 교사 연구실로 각자 향한다.

신홍 명문고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민사고의 점심 시간 풍경이다. 민사고는 개교 10년에 불과하지만 현재까지 430여명의 졸업생 전원이 대학에 입학한 것은 물론, 이중 139명은 미국 아이비리그의 명문대학 등 해외 대학에 입학하는 등 자립형 사립고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다. '영재교육', '민족주체성 교육', '영어상용', '기숙사 학교' 등으로 대표되는 민사고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

◇과감한 투자와 특색화 = 민사고의 설립 목적은 '민족의 정신적 전통과 문화적 바탕을 몸에 익힌 세계적 지도자 양성'이다. 설립자인 최명재 이사장은 개교 이래 교육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1천억원이라는 엄청난 투자를 해야 했다. 38만여평의 부지, 12층 기숙사, 8레인 우레탄 400m 트랙, 잔디구장, 인도어(indoor) 골프장 등 시설은 어디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교사 수는 학생 7인당 1명 꼴로 외국의 일류 명문 사립고를 앞서는 수준이다. 학생 수가 학년 당 150명에 조기 졸업자를 빼면 420여명. 교사 수는 현재 65명(외국인 5명 포함)이다. 이중 박사 학위 소지자만 35명으로 절반을 넘는다. 교사의 급여는 일반 학교의 150% 수준이며, 32명 아파트와 개인 연구실이 제공된다.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일에만 열중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든 것이다.

민사고의 모든 교육은 설립 목적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국어와 국사를 제외한 모든 과목을 영어



민사고 1학년생들이 점심시간 동안 다산관 앞 송창교에 모여 앉아 서로 얘기를 나누고 있다.

로 진행하는 영어상용화(EOP·English Only Policy)도 '영어는 수단이며 그 자체로 결코 학문의 목적이 아니다'는 방침 아래 운영된다. 국공·태권도·혼정신성(昏定晨省·아침 저녁으로 부모에게 문안 인사하는 것)·국악기 등을 배우는 것은 '민족적 전통과 바탕'을 몸에 익히기 위해서다.

지난해 민사고의 등록금이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 수업료의 경우 현행 비상 자립형 사립고는 일반고의 3배 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매월 30여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는 탓에 기숙사비를 합치면 연간 1천600만원 가량을 학생이 부담해야 한다. 학교 측은 "지불하

민사고 학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중학교 성적 이 상위 5% 이내여야 한다. 거기에 10년 동안 민사고가 운영되면서 쌓아온 영재선발시스템을 도입해 국어·영어·수학·과학 등 기본 과목의 시험을 진행한다. 또 수학이나 과학, 영어 등 경시대회에서 탁월한 성적을 보인 학생들은 가산점이 주어진다. 올해 입학생의 경우 서울 등 수도권 학생이 70%, 나머지가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입학 당시 경쟁률은 3대1 정도였다.

◇자율적인 분위기 = 민사고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자율'이다. 지난해부터는 무감독 시험을 치르고 있을 정도다. 국가에서 정하는 공통과목을 제외하고는 모든 과목을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듣는다. 하고 싶은 공부를 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자신의 학교를 '공부하고 싶은 사람에겐 천국'이라 부르는 이유다.

민사고는 정규 수업시간이 오전 4시간, 오후 2시간 등 하루 6시간에 불과하다. 정규 수업시간 후에는 IR(Individual Research·개발탐구학습) 시간이 있다. IR 시간에는 학생들이 적성과 소질을 집중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과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 보장된다. 주제는 ▲미분방정식 등 응용수학에 관한 연구 ▲국제 올림픽아트 준비 ▲대금 개인지도 등 수백가지에 이를 정도로 다양하다.

민사고 학생들이 대학을 고르는 기준은 학교의 이름이 아니라 학과와 교수다. 이를 반영하듯 졸업생 중 국내 대학의 진학 분포를 살펴보면 연세대가 72명으로 가장 많고 카이스트(58명), 서울대(38명) 등이 뒤를 이었다. 경찰대와 육사에 진학하기도 한다. 이들의 진학 학과는 수학·과학·인문·사회학 등 개성만큼 다양하다. 전체 졸업생 가운데 의대 진학을 비율이 10%대에 그친다는 사실이 이를 잘 설명해준다.

전교생이 참여하는 학생위원회 활동은 학생들 스스로 규칙을 정하고 따르도록 해 사회성을 키워준다. 여기에 83개에 달하는 동아리 활동이 연중 활발하게 운영된다.

/글·사진=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교사수 학생 7명당 1명꼴 민족·국제반 나눠 특화교육 미국대학 교양과정도 들어

는 것 이상을 배워가기 때문에 특별히 이상할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독자적인 교육 시스템 = 민사고는 국내 대학 진학을 위한 민족반과 해외 대학을 위한 국제반으로 나뉜다. 민족반은 다시 문과와 이과 계열로 나뉘어 사실상 3가지 계열로 운영되고 있다. 민사고는 국내 대학 진학시 내신 성적이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해외 대학으로 눈을 돌렸고 이같은 정책은 성공했다.

내신의 불리함을 없애기 위해 국내외 각종 경시대회 입상도 독려했다. 그 결과 10년 동안 민사고 학생이 국제 물리 올림픽아트 등 국내외의 경시대회에서 입상한 것은 무려 3천번이 넘는다.

민사고 교육 프로그램 중 눈에 띄는 것은 단연 SAT와 AP(Advanced Placement·미국 대학 1학년 교양 과정)다. 현재 민사고에 개설된 SAT와 AP 과목은 각각 15개와 20개에 달한다. 지난해에는 미국 명문 대학에서 직접 민사고를 방문, 입학 설명회를 개최해 해외에서도 민사고가 명성을 떨치고 있음을 확인했다.

“자립형 사립고 특성화만이 살 길”

엄세용 민족사관고 교감



“자립형 사립고 성패의 비결은 결국 특성화다.”

민족사관고등학교 엄세용(45) 교감은 자립형 사립고가 대학 입시 예비학교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영재들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 올릴 수 있는 특성화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엄 교감은 “현재 자립형 사립고는 중앙 정부 뿐 아니라 지방 정부의 지원 없이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위해 끊임없이 투자해야만 하는 실정”이라며 “미발탁 독에 물북기”라고 비유했다. 이는 설립자의 굳은 의지와 독자적이고 질 높은 교육 프로그램, 우수한 교사진 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코 쉽지 않은 것임을 말해준다.

엄 교감은 “특히 시작할 때는 그럴듯한 각오로 출발해도 내신 등의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치면 처음 생각했던 학교 이념 등을 제대로 살리기 어려울 수 있다”며 “현실적인 문제는 당장 우수한 학생을 모으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 좋은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내신을 무시할 수 없지만 자립형 사립고의 경우 상대적인 불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수한 목적을 가진 특성화만이 살 길이라는 것이다. 엄 교감은 “광주의 경우 ‘예향’(藝鄕)으로 알려진 만큼 그것과 관련된 영재를 길러내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라며 “그렇지 않고 단순히 우수한 학생을 많이 모아 좋은 대학에 많이 보내기 위한 자립형 사립고라면 큰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민족사관고는

세계 초일류 목표 1996년 개교...영재 430여명 배출

민족사관고등학교(Korean Minjok Leadership Academy)는 파스퇴르유업 창업자인 최명재 재단 이사장이 세계 초일류 고등학교를 목표로 지난 1996년 3월1일 개교했다.

개교와 함께 입학한 제1기는 전국에서 전원 장학생으로 선발한 남학생 30명이었다. 내신등급 등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이들 중 11명만이 졸업했다. 당초 여자고등학교인 ‘사임당고등학교’를 개교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제1기 때 남학생만 선발했지만 제2기부터는 남녀공학으로 계획을 수정, 38명의 남·녀 입학생을 선발했다.

IMF의 영향을 받은 1998년 제3기에는 다시 30명만 선발하다, 2003년까지 60~90명의 신입생을 받았다. 민사고는 2003년 자립형 사립고로 지정됐고, 2004년부터는 법정 정원인 한 학년 150명을 선발하게 됐다. 개교 이후 2006년까지 11년 동안 960명의 영재들이 이 민사고 교문을 들어섰고, 그 중 430여명이 졸업했다. 이 가운데 97명이 조기졸업이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생활안내

교통안내	가정법률상담소	신고
광주종합버스터미널 360-8114	보건복지위원회 상담센터 671-4050	●학교폭력 112
월드안내 1544-7788	광주 YWCA 527-0011	●국번없이 226-0112
대한항공 222-2000	●24시간 청소년상담 233-2828	●사이버터러 02118
아시아나항공 221-6300	국번없이 1388	●가정폭력 여성긴급국번없이 1366
한국도로공사 1588-2505	●국제종합상담센터 1588-0060	●국번없이 363-0155
	●영유권법무청 1588-9090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소비자 상담 232-6133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광주 YMCA 524-5400	●광주아동학대예방센터 1391
●당직번호(10월) 오민근 222-6544	주부 YWCA 232-0643~4	●광주노인학대예방센터 1389
●법무사회 법률상담(28월) 김현희 239-1809	녹색소비자문제연구 369-9881	●국번없이 1389



목포를 찾는 여러분은 저희들의 귀한 손님입니다.



- 보해양조(주) 대표이사 임진우
- (주)행남자기 창업회장 김준형
- 신안관광(주) 회장 우경선
- 신안건설산업(주) 대표이사 조경구
- 가산토건(주) 대표이사 이윤남
- (주)한양 회장 이정구
- 전남조경건설(주) 대표이사 박재홍

- (주)금광 대표이사 이동진
- (주)옥주건설 대표이사 김영권
- 가업건설(주) 대표이사 장진술
- 정승건설(주) 대표이사 조인형
- 거룡광업소(주) 대표 신경남
- 목포시의사회 회원 일동
- 목포그린병원 임직원 일동
- 목포수산업협동조합 임직원 일동
- 근해유망수협 임직원 일동

- 목포농업협동조합 임직원 일동
- (주)목포홍익상호저축은행 임직원 일동
- 사회복지법인동민영아원 임직원 일동
- 동민복지재단동민어린이집
- 씨월드고속철리(주) 대표이사 이혁영
- 카웨리레인보우(주) 회장 박관영
- 진도운수(주) 대표이사 성기순
- (주)남해고속 대표이사 임직원 일동
- 중동상사 임직원 일동